

서왕모(西王母)의 요지연(瑤池宴)에서 〈세상은 요지경(瑤池鏡)〉까지: 한국 문화에 나타난 ‘요지’의 표상

이정하 이화여자대학교 중국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목천자전』에서 장생불사의 여신 서왕모가 주목왕을 만나는 요지는 이상향, 사랑과 이별의 장소, 선경 등을 상징하며, 전통 시기 한국에서도 애용된 신화 공간이었다. 19세기 조선 연행사들은 서양에서 수입된 상자 안에 렌즈를 넣어 구경하는 영상 장치를 요지경으로 명명했는데, 이는 여기서 상상해 왔던 요지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뿐만 아니라 요지가 낯설고 새로운 것을 표상했던 것에 이유가 있었다. 요지경에서 연행사는 기존 세계관과 상치되는 상업과 민간 문화가 번성하는 청나라를 보았고, 개혁파 지식인은 기존 질서를 전복할 개혁의 가능성을 보았다. 20세기 30년대에 탄생한 만요에서 요지경 속 세상은 전통, 서구 문화와 식민 지배가 뒤섞인 혼종의 시대를 뜻했고, 1960년대에는 빠르게 도시화하는 서울을, 90년대에는 세대 갈등을 의미했다. 충격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사회상을 요지의 풍경으로 빗댄 것으로, 이는 상서로운 여신의 공간 요지가 한국적 맥락에서 ‘낯설’이라는 새로운 상징을 부여받았음을 보여 준다.

주제어 서왕모, 요지, 연행사, 요지경, 만요

I. 들어가며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은 잘난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대로 산다.
야이 야이 야들야 내 말 좀 들어라.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친다.

어디선가 한 번쯤 들었을 이 노래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짜가가 판치는 요지경 속’이라고 한다. 요지경은 근대 시기 아시아로 수입된 서양 문물로, 확대경 안에 여러 그림을 넣어 놓고 구경하는 장치다. 요지경의 ‘요지(瑤池)’는 한때 아시아를 흥미했던 장생불사의 여신 서왕모와 주나라 목왕(穆王)이 서로를 위해 노래를 불렀던 곳이었으며, 동아시아인이 꿈꾸던 이상향이었다. 그러나 지금 한

국에서 그 휘황찬란한 과거를 기억해 주는 이는 드물고, 요지경은 오히려 이상향과는 정반대인 ‘짜가가 판치는 세상’, 곧 혼란스러운 사회를 이르는 말이 되었다. 이처럼 요지의 의미가 반전되기까지 어떠한 과정이 있었을까?

요지경은 19세기 조선 연행사의 기록물에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간 근대 서양 문물 연구는 대체로 안경, 자명종, 망원경 또는 서학이라는 커다란 흐름에 집중해 왔고, 요지경에 주목한 사례는 드물다. 이는 요지경을 민간 오락물로 취급했던 연행사들의 인식과 요지경이 근대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았던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양모 신화가 널리 퍼졌던 동아시아에서 이 장치를 ‘요지경’으로 명명한 것은 조선왕조뿐이고, 상식 밖의 일을 ‘요지경’으로 지칭하는 것도 한국뿐이다. 따라서 요지 의미의 변천 과정을 되짚고 한국 문화 안에서 새롭게 획득한 표상을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이 글에서는 요지의 시작부터 지금에 이르는 변천사를 따라가 보고자 한다. 우선 요지를 기록한 현존 최초의 문헌 자료인 『목천자전(穆天子傳)』을 바탕으로 요지의 연원과 서양모 신화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소개한 후 요지 관련 한국 문헌을 중심으로 한반도에서의 수용과 변용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목천자전』에서부터 1993년 발매된 신신애의 <세상은 요지경>까지의 역사를 짚어 나갈 예정이다. 일상에 스며들어 낯설지 않은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관용구의 변천사를 거슬러 올라 그 어원을 밝히고, 요지가 한국의 역사적·사회적 요인과 결합하여 최초의 의미와 상반되는 표상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은 우리 사회의 단면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요지에서 요지경으로의 의미 확장은 중국 신화의 독특한 변용 사례로서 이 변화를 야기한 ‘한국’이라는 맥락의 특수성을 한 층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II. 요지의 탄생

요지는 『목천자전』에서 처음으로 그 이름을 알렸는데, 이곳에서 서왕모는 자신을 방문한 주목왕을 위해 연회를 베풀고 더불어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른다.

을축일에 천자가 요지의 가에서 서왕모에게 술을 대접했다. 서왕모가 천자를 위해 노래하기를, “흰 구름은 하늘에 떠 있고 산언덕은 절로 솟아 있습니다. 길은 아득히 멀어 산과 내가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대여 죽지 말고 다시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¹

오늘날 서왕모는 장생불사의 여신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이는 기나긴 역사적 변천 과정을 거친 결과다. 전국(戰國) 시기 이전에는 문헌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다 위진남북조(魏晉南北朝) 때에 이르러 3천 년에 한 번 열리고, 먹으면 장생불사한다는 반도(蟠桃) 복숭아의 주인이자 곤륜산(崑崙)을 다스리는 여신이라는 하나의 이미지로 수렴한다. 『목천자전』은 주나라 제5대 왕인 주목왕이 서쪽으로 원정을 떠난 이야기로, 여기서 서왕모는 아직 장생불사의 여신 이미지를 확정 짓기 전이며 불사약도 반도도 지니지 않았다. 또 요지는 곤륜산의 신성한 공간이었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서왕모와 함께 등장한다. 이는 곤륜 신화와 서왕모 신화의 결합이 시작됐음을 드러내며, 후일 서왕모 신화가 도교에 흡수됨에 따라 요지도 함께 도교仙境(仙境)으로 거듭났다. 『목천자전』에서 서왕모와 주목왕이 요지에서 가진 만남은 ‘요지연(瑤池宴)’이라는 고사로 정착하여 예술계에 적극 수용되었고, 무수히 많은 시와 소설 그리고 회화에서 재연되었다. 그 의미 역시 은자와 신선을 꿈꾸는 문인들을 위한 이상향, 사랑과 이별이 이루어지는 공간, 서왕모가 뭇 신들과 함께 생일잔치를 여는 장소 등 여러 갈래로 뻗어 나갔다.

이처럼 서왕모 신화에서 요지가 차지하는 위상은 높으나 요지는 서왕모를 기록한 가장 이른 문헌 중 하나인 『산해경(山海經)』에는 등장하지 않으며, 요지라는 이름의 유래 자체도 모호하다. 샤오빙(蕭兵)은 서왕모의 요지가 본래 곤륜산의 천지(天池)였을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이 가설은 곤륜산을 신화 공간이 아닌 중국 신장(新疆)의 실제 산으로 상정한 탓에 널리 받아들여지지 못했다(蕭兵, 1983). 한편 『목천자전』과 비슷한 기록이 『열자(列子)』에도 있는데, ‘뒤이어 서왕모를 방문하여 요지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서왕모는 왕을 위해 노래를 불렀고, 왕이 화

¹ 乙丑, 天子觴西王母於瑤池之上. 西王母為天子謠, 曰: 白雲在天, 丘陵自出. 道裏悠遠, 山川間之. 將子無死, 尚能復來(郭璞, 1997: 115).

답하였는데 그 가사가 매우 애달팠다'고 하였다.² 요지를 서왕모의 공간으로 그리는 두 자료와 달리 『우본기(禹本紀)』를 인용한 기록에서 요지는 서왕모와 무관하다. 『산해경·해내서경(海內西經)』의 곤륜허(昆侖虛)에 대해 곽박(郭璞, 276~324)은 '여기서부터 위로 2,500여 리를 가면 그 위에 예천, 화지가 있다. 승고 쪽으로 5만 리를 가면 천지의 중심을 덮는다. 이는 『우본기』에 나온다고 주를 달았고³, 감수(甘水)는 '곧 예천이다'라고 하였다.⁴ 한대(漢代) 『사기·대완열전(史記·大宛列傳)』은 『우본기』를 인용하여 '황하는 곤륜에서 나오며, 곤륜은 그 높이가 2,500여 리며, 해와 달이 서로 피해 숨으면서 광명을 가져다준다. 그 위에는 예천과 요지가 있다'고 했다.⁵ 『논형·담천(論衡·談天)』에서는 같은 구절인데도 『사기』를 인용하면서 '화지(華池)'라고 했다.⁶ 『문선·유천대산부(文選·遊天臺山賦)』의 '화지의 샘으로 입을 행군다'는 구절에 대해, 이선(李善, 630~689)은 『사기』를 인용하여 '곤륜 그 위에 화지가 있다'고 했다.⁷ 왕일(王逸, 生沒年 未詳)은 『초사·칠간·유간(楚辭·七諫·謬諫)』의 '닭과 오리는 마루에 가득하고, 개구리와 맹꽁이는 화지에서 헤엄치며 노닌다'에 대해 '화지는 방화의 못을 이른다'고 했다.⁸ 이처럼 『우본기』를 인용한 문헌들은 『목천자전』과 『열자』와는 다르게 요지를 설명하며 서왕모나 주목왕에 대한 언급이 없다. 종합해 보자면 『목천자전』과 『열자』에서 '곤륜산-요지-서왕모'의 체계를 형성한 반면에, 『우본기』 계열에서는 '곤륜-예천-화지'의 체계를 보인다. 한편 모두 『우본기』를 인용했는데도 다른 경우도 존재한다. 사마천(司馬遷, BC 145?-91?)의 인용문에는 '예천과 요지'이지만, 곽박은 이를 '예천과 화

2 遂賓於西王母，觴於瑤池之上。西王母為王謠，王和之，其辭哀焉(列子, 2007: 350).

3 自此以上二仟五百余裏，上有醴泉，華池。去嵩高五萬裏，蓋天地之中也，見『禹本紀』(郝懿行, 1973: 350).

4 即醴泉也(郝懿行, 1973: 354).

5 河出昆侖，昆侖其高二仟五百余裏，日月所相避隱為光明也，其上有醴泉，瑤池(司馬遷, 1982: 3179).

6 원문은 다음과 같다. "『우본기』에서 말하길 황하가 곤륜에서 나온다고 하였다. 그 높이는 3, 5여 리이며, 해와 달이 서로 피해 숨으면서 광명을 가져다준다. 그 위에는 옥천과 화지가 있다(禹本紀言河出昆侖，其高三仟五百余裏，日月所以避隱為光陰也，其上有玉泉，華池)"(王充, 1933: 190).

7 嗽以華池之泉。昆侖其上有華池(蕭統, 2019: 679).

8 雞鴛滿堂壇兮，鼉鼉遊乎華池。華池，芳華之池(王逸, 2013: 526).

지'로 기록했다. 현재로서는 『우본기』, 『열자』, 『목천자전』 등의 정확한 형성 연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각 기록의 순서 역시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화지가 변하여 요지로 불렸든, 서로 다른 두 연못이 혼동되어 하나로 합쳐졌든 현재 알 수 있는 것은 먼 옛날부터 곤륜산 정상에 연못이 있는 것으로 상상되었다는 것이다. 서왕모 신화가 곤륜 신화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이 신성한 연못이 서왕모와 연관성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⁹

III. 전통시기 한반도에서의 요지

요지의 풍부한 상징적 의미는 한반도에서도 사랑받았다. 한반도에 서왕모 신화가 전파된 시기와 방식에 관해 여러 학설이 있지만 명확하지 않으며, 요지 또한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 현존 한국 자료에서 요지를 인용한 가장 이른 기록은 최치원(崔致遠, 857~?)의 『계원필경집(桂苑筆耕集)』에 실린 「생일 선물을 바치며 올린 장문(獻生日物狀)」이다. 태위(太尉) 상공(相公)이 생일을 맞이하자 최치원은 선물과 함께 그가 공을 세우고 장수하길 기원하는 장문을 써 주었는데, 요지, 장생(長生), 술잔, 금모(金母)의 노래 등 『목천자전』의 이미지로 가득하다. 예컨대 “그리고 기필코 환해를 앗아서 안정시킨 뒤에는 응당 요지에 가서 회합하실 것 인바, 언제나 오색의 가벼운 구름이 행지를 뒤따르고, 천 년의 흰 학이 다투어 구치의 공을 바칠 것입니다. 그리하여 홀로 장생을 누리며 문득 진위에 오르시어, 조정하면서 옥황의 명령을 보좌하고, 술잔을 머금으며 금모의 노래를 들을 것입니다.”라며 태위를 주목왕에 빗대 한껏 치켜세운다.¹⁰ 금모는 서왕모가 도교 체계에 편입되며 부여받은 새로운 이름으로 최치원이 도교 영향을 받은 당

⁹ 서왕모와 곤륜산 역시 처음부터 같은 계통으로 오해받는 신화 중 하나인데, 『산해경』에서 곤륜산을 관리하는 신은 따로 있으며, 서왕모가 거주하는 공간은 곤륜산의 일부다. 서왕모가 곤륜산의 주인으로 등극하는 것 역시 지나긴 변천 과정을 겪은 후에 일어난다. 자세한 사항은 劉錫誠(2002: 159)를 참고.

¹⁰ 則必坐寧環海，後當去會瑤池。五色輕雲鎮隨行止，千年素鶴競效驅馳。獨保長生，卻登眞位。調鼎佐玉皇之命，銜杯聽金母之歌(최치원, 2010: 442).

나라 문학에 익숙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밖에도 요지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단구에는 한가로운 구름 흐르고, 요지에는 희고 밝은 달이 떴다. 찬란하게 빛나는 금모의 집에, 연꽃이 아름답게 만개했어라.”와 같이 「보허사(步虛詞)」에 실려 도교적 이상향을 그려내기도 했으나,¹¹ 유교 국가였던 조선의 문인에게 요지는 현실과 더 가까웠다. 자신의 거주 공간 또는 여행지의 아름다움을 요지에 빗냈으며,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자연물을 요지에서 왔다고 노래했다. 박팽년(朴彭年, 1417~1456)은 「경회루의 시연(慶會樓侍宴)」에서 “요지인가 부벽인가 옥루가 맑구나, 성대한 연회에 가까이서 모시니 총애가 극진하네.”라며 경회루의 아름다운 풍경을 노래하는 한편 임금 모시는 자신을 주목왕과 더불어 연회를 벌인 서왕모에 비유하였다.¹² 권호문(權好文, 1532~1587)은 모친상을 당한 후 벼슬을 단념하고 청성산(靑城山) 아래 무민재(無悶齋)에 은거하였는데, “요지의 서왕모 잔치를 부러워 말라, 인간 세상에도 이런 멋진 풍류가 있으니.”라며 청성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직접적으로 추켜세웠다.¹³ 서거정(徐居正)은 연앞에 따라 마신 술이 “요지연의 구운의 술잔보다 월등히 낫구나.”라며 찬미를 보냈고¹⁴, 최립(崔立, 1539~1612)은 맛 좋은 배를 맛보고는 “특이한 그 종자는 멀리 요지의 품종인 듯”이라 읊었다.¹⁵ 이처럼 조선시대 문인에게 요지는 가장 이상적이면서도 일상생활 곳곳에 스며든 공간 이미지였다.

한편 시대를 막론하고 태평성대와 임금의 장수를 비는 행사에서 부르는 노래에도 요지가 등장하곤 했다. 고려 악곡 「만년환(萬年歡)」에서 무용수들은 “소매 자락 훨훨 날리며 느릿느릿 박자 따라 가락에 맞춰 요지를 건너가네.”라며 왕이 계신 곳을 선계(仙界)로 끌어올렸으며,¹⁶ 조선시대에 환궁하는 세조를 위해 여기(女伎)가 바친 가요에서는 “내가 노래하고 또 동요하니 요지의 잔치에 모시기를

11 悠悠丹丘雲，皎皎瑤池月。煌煌金母家，荷花爛爭發(성현, 2012: 154-155).

12 瑤池浮碧玉樓清，昵侍華筵寵渥傾(박팽년 외, 1999: 21).

13 莫羨瑤池王母宴，人間好有此風流(권호문, 2015: 450).

14 絕勝瑤池九醞觴(서거정, 2007: 274).

15 異種瑤池降想遙(최립, 2000: 235).

16 投袂翩翩，趨拍遲遲，按曲度瑤池(『아악·당악·속악 고려사 악지』, 2011: 165).

원합니다.”라고 하였고, 사(詞)에서는 “무협(巫峽)에 잠깐 행우(行雨)를 따라 날아서 요지에서 자하배(紫霞杯)를 올리기를 원하도다. 벽도(碧桃)로 다시 천년수(千年壽)를 드리니, 역수가 면면하여 가이 없도다.”라며 임금의 만수무강을 기원하였다.¹⁷ 또 숙종이 예순이 되어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가며 새로 영수각(靈壽閣)을 세우자 이관명(李觀命, 1661~1733)은 상량문에 “요지의 신선 열매 익었다고 알려 주니, 시신들이 절하고 하늘과 같이 장수함을 하례하네.”라고 적어 전각의 안전을 기원하고, 기로소에 가입한 연로한 대신과 임금의 안녕과 건강을 빌었다.¹⁸

그러나 요지가 무조건 아름답고 황홀한 공간 내지는 장생불사를 상징하는 것은 아니었다. 죽음의 이미지를 드리울 때도 많았는데, 예컨대 요지는 왕실 구성원을 위한 애책문(哀冊文)이나 만장(挽章)에 빈번하게 등장했다. 삶과 죽음이 하나로 이어져 있다고 여긴 전통 시기 사람들은 장생불사의 여신인 서왕모가 죽음 역시 관장한다고 생각했다. 이 때문에 정희왕후를 위한 애책문에서 “요지에서는 금모와 잔치를 하리로다.”라며 그녀가 사후에 서왕모의 곁에서 영생을 누리며 요지에서 행복한 삶을 이어 가길 기원했다.¹⁹ 요지는 죽지 않은 신선들이 사는 공간으로 상상되었음에도 한편으로 죽은 후에 영생을 얻는 곳이기도 했던 것이다. 하지만 또 이와 반대로 「인열왕후 애책문(仁烈王后哀冊文)」에서는 “어찌하여 월전에서 짧게 머물고, 어찌하여 요지에서 잠시 놀았나.”라며 요지에서 짧게 머무르고 떠났다는 것으로 완곡하게 죽음을 표현하기도 했다.²⁰ 「정희왕후 애책문」에서 죽음 이후에 요지에 간 것과 달리 여기서는 요지를 떠났기 때문에 죽음이 찾아온 것이다. 이 밖에 상실과 외로움의 공간으로 그려지기도 했는데 허난설헌(許蘭雪軒, 1563~1589)의 시가 좋은 예다. 그녀는 “말 여덟 마리가 바람을 타고 가서는 돌아오지 않으니, 계수나무 가지와 황죽의 노래로 요지를 원망하네. 곤륜산 뜰의 비파소리가 구름 속에 메아리치며, 꽃에 치여 눈썹 그리기를 그만 두었다네.”라며 그 자신이 서왕모가 되어 돌아오지 않는 주목왕, 그리고 그와의

17 我歌且謠，願陪瑤池之宴。巫峽暫隨行雨出，瑤池願進紫霞杯。碧桃更獻千年壽，卜曆綿綿未可涯(『세조실록』, 1973: 19-20).

18 報道瑤池仙實熟，侍臣拜賀壽天齊(이관명, 2015: 443).

19 追皇英於湘水兮，宴金母於瑤池(김종직, 1997: 11).

20 寧少觀於月殿，詎薄遊於瑤池(김상헌, 2006: 247).



그림 1 정묘조왕세자책례계병 요지연도, 세로 145cm×가로 54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요지에서의 아름다웠던 만남을 원망하며 현실 세계에서의 외로움과 비애를 토로했다.²¹

이 밖에 요지연도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는 조선 후기에 8폭이나 10폭의 대형 병풍으로 제작된 도식화된 회화 작품으로 생일연(生日宴)이나 혼연(婚宴)과 같은 왕실 연회에 사용되었다(그림 1). 요지연도는 서왕모와 관련된 3가지 서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서왕모와 주몽왕의 요지연 고사, 팔선과해(八仙過海)와 반도대회(蟠桃大會), 그리고 선경 신앙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도상이다. 중국에서 이 세 고사는 각기 다른 회화 양식으로 발전했으며, 이처럼 하나의 도상으로 조합되는 것은 조선 후기만의 독특한 양식으로 당시의 시대적·사회적 요인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며 추동한 결과였다. 우선 8폭에서 10폭의 대형 병풍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이 등장했으며(김수진, 2017), 임란 후 사회가 정비되며 성장한 경제적 조건, 그리고 회화에 큰 관심을 가졌던 숙종, 영조, 정조 3대 왕의 치세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처럼 대체로 즐겁고 상서로운 공간으로 대표되었던 요지는 19세기 요지경이 등장하면서 그 의미가 확장되었다가 20세기에 이르러 급변하게 된다.

21 八馬乘風去不歸，桂枝黃竹怨瑤池。 昆庭玉瑟雲中響，傳語凌華罷畫眉(허난실현, 2019: 184).

IV. 요지경의 유입과 19세기 조선

요지경은 대략 1700년대에 유럽에서 탄생해 1830년대까지 유럽 전역에서 성행하였다(이상면, 2016: 6). 본래 영어권에서 peep box로 불리던 것이 17세기 말 광둥(廣東)을 통해 청나라로 수입된 후로는 서양의 도시 풍경을 보여 준다는 의미에서 ‘서양경(西洋鏡)’으로 불렸으며, 항저우(杭州)를 비롯한 남방 지역에서 유행하다 18세기 말에 이르러 베이징에 상륙하였다. 서양경은 점차 도시에서 흔한 물건이 되었고, 단순히 서양 도시 풍경을 구경하는 것에서 『서상기(西廂記)』, 『서유기(西遊記)』 등 소설이나 희극의 삽화 렌즈가 등장하여 인기를 끌었고, 상영자가 옆에서 북과 징을 치며 반주를 곁들여 이야기를 늘어놓는 민간 구전 기예로 발전했다(Kleutghen, 2015). 이는 오늘날에도 ‘라양편(拉洋片)’이라는 이름으로 베이징 일대에 민간 오락물로 남아 있다. 일본의 경우 18세기 초 중국과 네덜란드에서 수입하기 시작했으며 ‘메가네(眼鏡)’로 불렸다. 메가네는 중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점차 민간 오락물로 발전해 나갔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사용된 렌즈는 우키에(浮世)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쳤다(商偉, 2016: 106; Sang-Myon Lee, 2015: 103)(그림 2).

이상면은 이 영상 장치가 일본 유입 후 미친 영향을 다룬 논문에서 18~19세기에 한국에 유입되었다는 기록이 발견되지 않아 명칭이 명확하지 않다가 ‘영상그림상자’로 명명하였으나(이상면, 2016: 6), 적지 않은 조선 연행사들이 연경에서 이를 접한 기록을 남겼고, 요지경이 바로 그 이름이다. 요지경의 한자 표기는 ‘요지의 풍경을 보여 주는 렌즈(鏡)’를 뜻하는 ‘瑤池鏡’과 ‘요지의 풍경 그 자



그림 2 마루야마 오우쿄(丸山応挙) 전정작, 18세기 후반, 중국누각풍경도, 세로 27cm×가로 45.5 cm, 고베시립미술관 소장

체'를 뜻하는 '瑤池景' 두 가지로 쓰였다. 이는 중국에서 서양경으로 명명한 까닭과 흡사하다. 중국에서는 이 장치로 서양 근대 도시 풍경을 볼 수 있었고, '서양경치(西洋景致)'라는 깃발을 달고 있었기에 서양 풍경을 보여 주는 렌즈를 의미하는 西洋鏡으로 쓰기도 하고, 풍경 그 자체를 뜻하는 西洋景으로 쓰기도 했다. 요컨대 중국인은 서양경을 통해 서양의 근대화된 도시 풍경을 보았기에 그렇게 이름 지었다는 것이고, 같은 맥락에서 조선에서 이를 요지경이라고 부른 것 또한 이들이 렌즈를 통해 그간 그들이 상상해 온 요지의 모습과 일치하는 풍경을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김진수(金進洙, 1797~1865)의 문집에서 그 구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중인 출신인 그는 생애의 구체적인 행적이 남아 있지 않지만 1832년에 동지사행으로 연경에 다녀와 『벽로집』에 연경의 모습을 가득 남겨 놓았다. 그는 이국적인 기물과 기호품에 한껏 매료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빈랑, 오르골 등 다양한 서양 수입품을 보고 이를 시로 남겼고 그중에서도 요지경에 관한 시는 7수로 요지경에 대한 그의 관심은 각별했다.

요지경 제1수

동그란 달같은 얇은 막 속 하늘이요,
 눈앞에 아득히 펼쳐진 신선의 궁궐이라.
 파랑새가 먼저 오고 서왕모가 내려오니,
 채색 구름 저 너머 꽤옥 소리 들려오네.

요지경(瑤池景)은 양의 뿔로 껍데기를 만들고 조그마한 구멍을 뚫어 거울을 붙여서 비춰 본다. 가운데에 신선의 경치를 설치하여 순식간에 변환이 되게 했는데 그림이 비쳐 나오면 나올수록 더욱 기이한 경치를 보여 준다. 큰 길의 옆에다 매달고 푸른 장막을 설치하였다. 탁자를 그 앞에다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탁자에 의지하여 구경을 하게 하면서 먼저 관람료로 은전을 요구한다.²²

이로 추정하건대 김진수가 본 요지경은 신비롭고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22 團圓鷄子膜中天, 縹緲瑤京在睫前. 青鳥來時金母降, 瓊聲遙落綵雲邊. [自註瑤池景, 以羊角爲殼, 穿小穴, 貼鏡以照, 中設神仙景, 頃刻變幻, 愈出愈奇, 懸於大路旁, 設青布帳, 置卓於前, 使據卓而翫之, 先索銀錢. 博一金錢, 便入佳境, 久視精微, 亦可類推(김진수, 2018: 341).

여신 서왕모가 내려오는 장면을 그린 렌즈였을 것이다. 나머지 6수에서도 모두 신선 세계를 그리고 있어 ‘요지경’이라는 이름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상상해 온 요지의 풍경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던 데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 그가 연행을 떠났던 19세기 중반 연경에는 이미 단순한 풍경을 넘어 『수호(水滸)』, 『홍루몽(紅樓夢)』 등 이야기 중심의 요지경이 유행하고 있었는데도 김진수가 요지의 풍경을 묘사한 요지경을 구경했다는 것은 해당 종류의 요지경이 가장 인기가 있었거나 유행과 무관한 스테디셀러였을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가장 널리 사랑받는 종류로 이름 지어지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모호한 점은 신선 세계를 그린 풍경을 봤다고 묘사하는 연행사는 김진수뿐이며, 요지경을 瑤池景으로 쓴 연행사도 김진수 한 명이라는 것이다. 다른 그림을 본 것으로 묘사한 연행사는 모두 瑤池鏡으로 표기했다. 그리고 조선보다 일찍 장치를 수입했을 뿐 아니라 서왕모와 요지 관련 고사를 공유하는 중국과 일본에서는 요지경으로 부르지 않았던 것도 의문으로 남는다. 중국과 일본에서 요지경을 지칭했던 ‘서양경’과 ‘안경’은 조선에서 시력 교정을 위한 안경을 의미했다. 예컨대 홍대용(洪大容, 1731~1783)은 1765년에 수행한 연행에서 남천주당을 방문하여 서양 선교사 유송령(劉松齡)과 포우관(鮑友管)을 만나 서양 문물을 구경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때 안경을 서양경이라고 부른다.

두 사람이 모두 안경(眼鏡)을 썼기에 내가, “서양 안경(西洋鏡)도 역시 수정으로 만들었습니까?” 물으니, 유송령이, “수정으로는 안경을 만들지 않습니다. 눈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모두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였다.²³

게다가 오늘날 중국과 일본에서는 요지경이라는 어휘 자체가 쓰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사리에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세상사에 빗대어 사용하는 나라 역시 한국뿐이다. 이 때문에 필자는 조선 연행사가 peep box, 서양경, 안경 등 기존 명칭이 아닌 요지경이라는 이름을 선택했던 것에는 요지의 풍경을 볼 수

²³ 二人皆戴眼鏡。余問西洋鏡亦以水晶乎。劉曰，水晶不可作鏡，以傷眼也，我輩皆不用(홍대용, 1985: 55).

있는 장치라는 표면적인 뜻 외에도 한층 더 깊은 의미가 있으리라 추정하였다. 후술하겠으나, 요지경에서 어떤 이는 이야기를 구경하고 렌즈가 빠르게 전환되는 기술에 감탄했고, 어떤 이는 서양 도시를 구경하고 조선의 근대 개혁을 꿈꾸는 등 구체적으로 보고 느낀 것은 각기 달랐으나, 모두 이들의 기존 세계관을 이루는 조선의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었다. 그렇기에 瑤池景보다는 瑤池鏡이 더 보편적인 용어였던 점, 연행사마다 묘사하는 요지경 내용이 다르다는 점 그리고 이에 대한 가치판단 또한 사람마다 달랐던 점까지 두루 고려했을 때 이들이 요지경이라는 이름을 선택했던 이유는 요지가 조선왕조의 문화적 맥락에서 ‘이 세상에는 없는 낯선 것’을 표상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영어로 peep box, 독일어로 ‘들여다보는 상자(Guckkasten)’, 프랑스어로 ‘시각상자(boite d'optique)’로 ‘본다’는 행위에 집중하여 명명한 반면, 이탈리아에서는 ‘새로운 세계(mondo nuovo)’로 불렸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이상면, 2016: 6). 이탈리아는 조선과 마찬가지로 장치의 새로움과 이에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낯설음에 초점을 맞추어 명명했던 것이며, ‘새로운 세계’는 한국적 맥락에서 ‘요지’로 대체될 수 있었다. 요지는 ‘지금, 이곳’에 존재하지 않는 피안(彼岸)의 세계로, 낯설음은 본래부터 지닌 속성이었기에 상상하는 주체의 인식체계 밖 그 무엇이라도 지칭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조선 연행사들은 구체적으로 요지경에서 무엇을 보고 새롭고 낯설다고 느꼈을까? 최초로 요지경의 존재를 언급한 사람은 조선 순조 때의 이해응(李海應, 1775~1825)이다. 『계산기정(蔚山紀程)』에 따르면 그는 1804년(순조 4)에 동지사 서장관으로 연경에 갔다 요지경을 보았다.

저녁에 경박(景博) 등 여러 사람을 따라 주루(酒樓)에 들어가 한번 쾌히 마셨다. 유리창으로 돌아 나오니 창씨(倡氏)가 요지경(瑤池鏡)을 놀리고 있는데 이는 노상에서 종종 보던 것이다.²⁴

창씨는 창우(倡優), 즉 배우나 광대 등이 갖는 성씨로 옛날 중국의 직업 예능인

²⁴ 晚從景博諸人，入酒樓一暢。遂轉向琉璃廠，倡氏戲瑤池鏡，種種多路上觀(이해응, 1976: 255).

을 뜻한다. 따라서 저자가 본 요지경은 렌즈로 풍경을 보여 주던 단순한 종류에서 한 단계 발전한 배우가 이야기를 곁들이는 종류로 추정되며, 또한 노상에서 종종 보았다는 것을 통해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중적인 오락거리임을 알 수 있다. 저자는 보고 들은 것을 간단하게 기록하였을 뿐 요지경의 작동 원리나 이에 관한 자신의 호오(好惡)를 밝히지는 않았다. 그가 요지경을 보았다는 유리창(琉璃廠)은 청대 지식인의 중요한 문화 공간이자 조선 지식인이 이국 문화를 접하고 서양 문물을 수용하는 최적의 공간이었다(이홍식, 2015: 346). 유리창에는 서점처럼 연행사의 지적 욕구를 채워 주고, 지식인으로서 고급문화를 탐구할 수 있게 하는 공간도 있었으나, 비실용과 사치로 비판받았던 각종 서화와 골동품을 파는 가게들도 즐비했다. 자명종, 오르골, 요지경, 안경 등 서양 물품을 취급하는 가게들로 넘쳐났고, 각종 은전포와 전당포가 가득하여 역시 비판의 대상이었던 상업이 번성하고 있었다(이홍식, 2011: 3). 그중 요지경은 이해응이 본 그대로 완물상지(玩物喪志)의 대상이었으며 유리창의 세속적이고 대중적인 문화를 상징했다.

그 후 1822년(순조 22) 연경으로 사은 사행을 떠난 남이익(南履翼, 1757~1833)도 요지경을 구경할 기회가 있었는데, 직접 유리창에 나가 구경한 것이 아니라 말물이꾼 운태가 가져다주어 보게 되었다고 한다. 남이익은 상세하게 요지경의 구조와 사용법을 설명한다.

운태가 세속에서 이른바 ‘요지경(瑤池鏡)’이라는 것을 가져왔기에 불러들여 보았더니, 열 길의 기다란 편목을 가로로 놓아 다섯 부분으로 나누고, 구멍을 뚫어서 거울을 놓아 두었다. 그 기구는 대바구니와 비슷한데, 10여 장의 지폭에 진한 채색으로 산수와 누각, 인물이 유희하는 형상을 그려서 차례로 대바구니 안에 바꿔 넣고 거울로 들여다보면, 그 안이 넓찍해서 그려 넣은 각각의 물건들이 은연히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것은 그림이 신묘한 경지에 든 것이 아니고, 거울 또한 특별한 형태로 정교하게 제작한 것이 아니다.²⁵

²⁵ 雲秦率來俗所謂瑤池鏡者，故招入見之，則橫十長片木，分五處，鑿穴安鏡，其器則似籠，而十餘紙幅以真彩畫山水·樓閣·人物·遊戲之狀，鱗次換入於籠中。窺鏡而見之，其中敞豁，所畫各物，隱然有活動底意，此非狻畫之入神妙鏡，亦別樣精製矣(남이익 외, 2018: 273).

남이익은 요지경을 구경한 사행 중 드물게 요지경의 작동 원리에 관심을 가지고 상세히 서술하였다. 그가 본 것은 줄거리 없이 다양한 풍경을 보는 초기 형태지만 서양이 아닌 중국풍의 풍경을 본 듯하다. 요지경을 소개해 준 사람이 말물이꾼이었고, 세속에서 가져왔다는 점, 그림도 렌즈도 정교하지 않다는 그의 평가에서 이 요지경 역시 민간에서 유행하던 종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남이익은 ‘이른바 요지경’ 운운하며 이에 관해 들어 본 적이 있음을 시사하는데, 중국이나 일본에는 요지경으로 불린 기록이 남아 있지 않고 현재도 요지경이 특정 의미를 지닌 개념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요지경이란 이름이 조선인 사이에서 퍼졌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 1828년(순조 28)에 사은 겸 동지 정사 홍기섭(洪起燮, 1776~1831)의 막비로 연경에 간 박사호(朴思浩, ?~?)도 연행록을 남겼다. 그는 「유리창기(琉璃廠記)」에서 유리창의 위치부터 시작하여 요지경을 비롯한 보고 들은 것을 상세히 기록했다.

요지경(瑤池鏡)은 크고 작은 것을 물론하고 그 기교를 극도로 하였는데, 그 한두 가지를 취하여 엮본다면, 채각경사, 기화벽수, 인물과 새·짐승들이 다 살아 있는 것 같고, 혹은 홍문의 잔치와 적벽의 싸움, 서원의 점잖은 모임과 남궁의 큰잔치 등이 있어, 굴대를 따라 스스로 돌아서 마치 걸음을 옮기고 그림자가 변환하는 것 같아서 참으로 기이하다.²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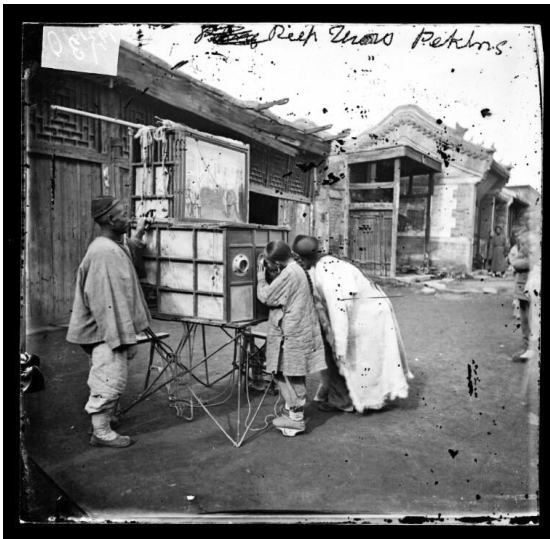
그가 열거한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박사호가 본 요지경은 이야기 중심으로 펼쳐지는 종류로 보이며, 남이익과 마찬가지로 그도 요지경 내부에서 그림이 저절로 움직이는 듯한 느낌에 매료되었던 듯하다.

1831년(순조 31)에 사행단의 타각군관으로 따라갔던 한필교(韓弼教, 1807~1878)는 『수사록(隨槎錄)』을 남겼다. 앞의 세 사람이 요지경에 대해 가치를 판단하기보다는 보고 들은 정보를 전달하고, 거기에 사로잡힌 마음을 표현하는 데 치중했던 것과 달리 그는 화려하기만 해 사람을 현혹하는 청나라의 물질문명을 비판하며 요지경을 그 예로 들었다.

²⁶ 瑤池鏡, 無論大小皆極技巧. 取其一二而窺見, 則綵閣瓊樹, 奇花碧樹, 人物鳥獸, 皆如活. 或有鴻門之宴, 赤壁之戰, 西園雅集, 南宮大宴, 隨軸自轉, 如移步幻影, 誠可異也(박사호, 1977: 174).

열흘에 한 번씩 9일자에 시장을 여는데, 수레와 말이 가득하고 온갖 물건들이 모여 드니 거의 발걸음을 옮기지 못할 정도다. 온갖 기호품들을 벌여 놓고 매매하는데, 신기하고 교묘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눈이 현혹되고 정신이 헛갈릴 지경이다. 조화와 패물, 작디작은 수레와 가마, 간들간들한 주옥, 그리고 이른바 ‘요지경(瑤池鏡)’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그러하였다. 또 수숫대를 사용하여 누각의 형태를 엮었는데, 중간에 벌레 1, 2마리를 만들어 넣었다. 또 인형이 종이 말을 타고서 고삐를 잡고 채찍을 추켜올리고 있는 모양을 교묘하게 만들었는데, 그 말이 능히 발걸음을 떼고 십수 보를 가셔야 멈춘다. 이러한 것들은 단순히 아이들이 잠시 가지고 노는 장난감에 불과한 것이지만, 또한 돈을 받고 파는 것이다. 대개 놀고먹는 백성들을 위한 기술이 다양하기가 이와 같다.²⁷

드넓은 용복사(隆福寺)의 바깥 정원에 세계 각국의 상인들이 모여 교역하는데, 혼을 쏙 빼놓는 그 현란한 물품 중에 요지경도 있다. 한필교의 눈에 요지경은 신기하고 교묘하긴 하지만, 사람을 현혹하고 정신을 혼들어 놓는 잡다한 기물



출처: Welcome Collection.

그림 3 John Thomson, 촬영, 1869년, 베이징 거리에서 서양경을 구경하는 사람들

²⁷ 每旬必以九日為設市之期，車馬填咽，物貨交湊，殆不能移履。而千百玩戲之物羅列買賣，莫不乞巧精妙眩慌駭惑，如假花雜佩，小小車輦，細細珠璣及阿謂瑤池鏡者，又以高粱榦構成樓閣之形，中置鳴蟲一，二枚。又巧作人形跨紙馬，執鞚拂鞭而馬能移蹄行十數步二止。不過是小兒一時供玩之具，而亦受銀行賣，蓋其游民資生之術類皆如此(한필교, 2017: 287-288).

에 지나지 않는다. 요지경을 사는 자는 어린아이처럼 문화 수준 혹은 사회적 신분이 낮은 사람이고 또 이를 판매하는 행위 역시 유가적 가치에 어긋나는 상업행위로, 모두 비판의 대상일 따름이다. 이 같은 요지경에 대한 한필교의 거부감은 조선 연행사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는데 청나라 지식인 역시 민중들이 요지경에 열광하는 것을 알보았다. 무언가를 엿보듯 작은 구멍에 눈을 대고 허리를 굽혀야 볼 수 있는 요지경의 구조 자체가 지식인 남성들의 거부감을 불러일으켰다. 유교 문화에서 엿보는 것은 어린아이나 신분이 낮은 사람들만 하는 행동이었으며, 구부정한 자세 그 자체만으로도 체통에 어긋났다. 무엇보다도 조선과 청나라의 유교 지식인들에게 낯이 번성하는 상업과 대중들의 취향에 영합하는 민간 오락물은 그들의 가치관과 상치되었다(Kleutghen, 2015: 773).

한편 홍순학(洪淳學, 1842~1892)은 나이 25세에 서장관으로 연경을 다녀오며 『연행가』에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소상히 관찰하여 기록하였다. 그는 ‘풀이’를 통해 요지경을 포함해 연경에서 본 새로운 물건을 나열하였다.

잡화푸리 불작시면 면경석경 화류체경, 지반보는 진암철과 시마초는 시계들과, 절노우는 즈명종과 그림 그린 유리병과, 고등틀면 소리나고 오음녹늘 즈명악과, 유리군영 여어보는 기험괴상 요지경과, 빅옥등잔 유리등은 옥미화의 금납비라(임기중, 2011: 1447)

홍순학은 요지경을 유리에 난 구멍으로 기이하고 괴상한 그림을 볼 수 있는 물건으로 묘사한다. 19세기 말에도 요지경은 여전히 기록할 만한 특이한 물품이었고, 여타 연행사들이 그랬듯 홍순학에게도 요지경은 완상의 대상이긴 했으나, 그의 연행가사는 더 많은 물류를 소개하는 데 크게 활애되었다. 여기서 물류 인식의 폭이 확장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시기에 물류에 대한 실용적 가치를 지향하는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기 때문이다(임기중, 2006: 464). 요지경과 관련된 19세기 사행 기록의 특징은 연행사들이 요지경에 대해 양가적인 감정을 지녔다는 점이다. 이들은 요지경을 연경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청의 상업 문화, 민간 기예로 치부하면서도 처음 보는 기술을 신기해하고 기록으로 남길 만하다고 여겼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기록은 바로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김옥균, 서재필과 관련된 일화다. 1947년 출간된 『서재필 박사 자서전』에는 개화사상이 옴튼 계기에 관한 서재필의 회상이 나온다. 그에 따르면 김옥균과 서재필이 봉은사에 놀러 갔을 때 일본에 드나들던 스님 이동인을 통해 요지경과 『만국사기(萬國史記)』를 구경하였는데, 요지경으로 세계 여러 나라의 도시와 군대 모습을 보았고, 책을 통해서도 각 나라의 명칭과 내력을 알 수 있었다고 한다. 이를 보고 조선도 다른 나라처럼 인민의 권리를 세워 보자는 생각이 났고, 그것이 개화파로 나서게 된 근본 원인이었다고 서재필은 설명한다(김도태, 1972). 연경 유리창에서 연행사들이 요지경을 청나라의 상업화된 민간 문화로 받아들일 뿐 그들의 세계관에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 것과 달리, 김옥균과 서재필은 이를 서양 근대화의 산물로 이해했다. 개화파 지식인들이 요지경에서 본 근대 서양의 풍경만으로 개혁을 구상한 것은 아니겠지만, 조선 말 요지경이 지닌 복잡한 의미 층위에는 ‘근대’와 ‘개혁’도 존재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요지경은 양경(洋景)으로 표기된 적도 있었는데, 1886년 2월 22일 독일 상사 세창양행이 『한성주보(漢城周報)』에 실은 광고에 나타난다.

알릴 것은 이번 독일 상사 세창양행[독일인 마이어(E. Meyer)]이 조선에서 개업해 외국에서 자명종·양경(洋景)·뮤직 박스·유리·각종 램프·서양 단추·각종 직물·서양 천을 비롯해 염색한 옷·선명한 안료·서양 바늘·서양실·성냥 등 여러 가지를 수입해 물품의 구색을 맞추어 공정한 가격으로 팔고 있으니, 모든 손님과 상인은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매상이든 도매상이든 시세에 따라 교역할 것입니다. 아이나 노인이 오더라도 속이지 않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저희 세창양행의 상표를 확인하시면 거의 잘못이 없을 것입니다(한성주보 1886/02/22).

광고에서 홍보하고 있는 요지경은 물론, 자명종과 뮤직 박스까지 모두 기이한 서양 문물이자 청나라의 번성한 상업의 상징으로 연행록에 빠지지 않던 단골 물품이었다. 그러나 이 광고에서 이들은 더 이상 연행사들이 특권처럼 연경이라는 낯선 공간에서만 접할 수 있는 희소한 물건이 아니라, 소매상, 도매상, 아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두에게 공정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거래의 대상이다. 서양의 풍경을 뜻하는 양경이라는 새로운 이름은 곧 19세기 지식인이 체험한 ‘새

롭고 기이한 청의 상업 문화'가 아닌 '서양의', '진보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이처럼 요지가 표상하는 낯성과 이에 따른 신선함과 기이함이 불필요한 경우 더 이상 요지경으로 불리지 않고, 양경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비록 이 하나의 사례로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이는 19세기 끝자락에서 요지경이 상품으로서 근대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낯성을 의미하게 된 것을 보여 주는 것일 수도 있다. 이 또한 상업을 천시하던 유교 사회 조선의 기존 질서에 균열을 내는 사건이었을 것이다.

V. 20세기 한국을 비춘 '요지경'

그러나 양경이라는 이름은 조선인에게 널리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20세기의 시작과 함께 거센 근대화 물결에 휘말린 동시에 식민지 시대를 겪어야 했던 조선인들 사이에서 격변하는 시대상을 풍자하는 용어로 쓰이기 시작한 건 요지경이었으며, 양경이라는 이름은 그대로 사라졌다. 1937년 김정구가 발표한 <세상은 빙글빙글>과 그 이듬해에 최남용이 부른 <요지경 서울>은 당시 사람들에게 요지경이 의미하는 바를 잘 보여 준다.

요지경 속이다. 요지경 속이다.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생글 생글 생글 생글 아가씨 세상.
 병글 병글 병글 병글 도련님 세상.
 애, 애, 애들아, 내 말 좀 듣거라.
 얼굴이 잘나면 잘나서 살고,
 못난 사람은 제 멧에 산다.
 얼싸 음마 둥개 둥개 아무렴 그렇지 둥개 둥개

싸구려 판이다, 싸구려 판이다.
 세상은 싸구려 판이다.
 찰랑 찰랑 찰랑 찰랑 막걸리 술잔

지글 지글 지글 지글 매운탕 안주

애, 애, 애들아, 내 말 좀 듣거라.

곶빼기 한 잔에 웃음이 가득.

삼팔 수건에 추파가 온다.

얼싸 음마 등개 등개 아무렴 그렇지 등개 등개(조영출, 2013: 283-284)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와 ‘세상은 싸구려 판이다’라는 노랫말은 요지경 속 풍경이 곧 싸구려가 판치는 1930년대 사회와 같다는 말이다. ‘둥글둥글’, ‘뱅글뱅글’처럼 반복되는 가사는 모두 어지럽게 돌아가는 세상을 강조해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장유정, 2012: 217). 이곳에서 아가씨와 도련님은 세상 물정 모른 채 웃기만 할 뿐이고, 세상 사람들 모두 원칙 없이 자기 멋대로 부유할 따름이다. 화자는 반복해서 자기 말을 들어 달라고 하지만, 그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는다. 이는 노래가 발매됐던 해로부터 100년 전 요지경을 통해 연행사들이 새로운 기술과 청나라의 번성한 상업 문화를 보고, 약 50년 전 김옥균이 근대화의 단초를 발견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다. 19세기 요지의 낯섦이라는 표상은 적어도 아름답고 신비한 풍경을 기반으로 하지만, 20세기에는 이 표상이 ‘비정상’으로까지 확장했음을 의미한다.

그 원인은 세 집단이 처한 시대상이 달랐기 때문이다. 19세기 지식인이 느낀 낯섦은 연경이라는 이국 땅에서 서양 기술과 청나라의 상업적인 민간 문화를 접하면서 왔으나, 20세기 민중들은 강제된 근대화의 물결과 식민 지배라는 억압적인 상황에서 대대로 뿌리박고 살아오던 제 땅마저 낯설게 느꼈다. 개화기 이후 한국 사회를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는 ‘혼종’이다. 노래가 발매되었던 구한말~일본 강점기에는 전통, 서양, 일본의 모습이 두루 나타나고, 이에 따라 혼종된 문화와 예술이 등장했다. 대중음악이 상업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며 유행가, 신민요, 재즈송 그리고 만요 등 다양한 곡종이 등장했다. 그중 1930년대 등장한 만요는 그 음악적 특징부터가 당대의 다른 곡종의 특징이 여럿 섞여 나타나며, 그 핵심은 시대상을 적극 반영하고, 웃음을 통해 이를 비판하는 데 있다(전은진, 2018: 178). <세상은 빙글빙글>과 <요지경 서울>이 발표된 1930년대는 근대적 도시 문화와 여기에서 파생한 소비문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시기다. 도시의 대중들은 ‘모던한’ 이미지를 소비하며 근대의 부산물에 환호했지만, 동시에 식민지

라는 현실에 절망하고 열패감을 느끼기도 했다(박애경, 2009: 140-141).

혼종의 시대에 만들어진 이 요지의 표상은 그 뒤로도 이어진다. 1965년 발매된 은방울 자매의 〈요지경 서울〉에서 서울은 “남산에 올라서서 밤서울 보며는 은하수가 떨어졌나 온통 별바다”이며, “쌍쌍이 걸어가는 젊은 아베크, 아래위를 살펴봐도 남자가 여자인지, 여자가 남잔지, 그거 정말 알쏭달쏭”한 풍경이다. 이 노래는 빠르게 진행되는 도시 개발로 변화하는 도시 풍경과 사회상을 드러냈다. 그로부터 30여 년 뒤인 1993년 신신애는 〈세상은 요지경〉을 발매하여 큰 인기를 끌었다. 여기서 요지경이 비추는 풍경은 30년대 싸구려, 60년대 도시화한 서울에서 ‘짜가가 판치는’ 모습으로 한층 더 타락했다.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은 잘난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대로 산다.
 야이 야이 야들아 내 말 좀 들어라.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친다.

인생 살면 칠팔십 년 화살같이 속히 간다.
 정신 차려라, 요지경에 빠진다.
 싱글 병글 싱글 병글 도련님 세상,
 방실 방실 방실 방실 아가씨 세상.
 영감 상투 비뚤어지고, 할멈 신발 도망갔네 허.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은 잘난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대로 산다.²⁸

이 노래는 TV 드라마 〈뽕짝네〉에서 신신애가 부른 것으로 시대를 풍자하는 가사, 신신애의 무표정한 얼굴과 심드렁한 창법, 그리고 기묘한 춤사위까지 더

²⁸ 음원사이트 Bugs. 〈세상은 요지경〉가사. <https://music.bugs.co.kr/track/2757819>(검색일: 2022. 9. 28.).

해져 큰 반향을 일으키는데 사실 이는 본래 만요가 지닌 특성이 생생하게 발현된 덕분이었다. 만요는 태생부터 도시 군상의 지나친 욕망과 우둔함을 부각했고, 이들의 부유하는 욕망이 때로는 뒤틀리며 듣는 사람들이 웃게 만든다(박애경, 2009: 149). 90년대는 기성세대와 신세대의 양극화의 극점을 바라보기 시작한다고 평가받는다. 신신애의 <세상은 요지경>은 이를 잘 드러내는데, 요지경을 통해 보이는 것이라곤 세상과 무관하게 해맑은 젊은이들과 비뚤어진 상투마저도 버리지 못하고 고집하는 영감, 그리고 신발조차 오간 데 없는 할멈뿐이다. 이는 아마도 신세대와 기성세대가 바라본 서로의 모습일 텐데, 세대 간의 갈등은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요지경’이라는 상징은 서로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이 낯선 90년대 사람들의 감정을 잘 표현했다.

이처럼 19세기 이래 요지경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것을 보았다. 김진수는 말 그대로 요지의 풍경을 보았고, 다른 연행사들은 하찮은 민간 기예이긴 하지만 경탄할 만한 새로운 기술을 보았고, 서재필은 근대화의 가능성을 보았다고 했다. 20세기 30년대 사람들은 요지경 속 풍경이 그들이 처한 근대화와 식민 통치가 뒤섞인 혼란스러운 시대상과 같다고 여겼고, 60년대에 이는 빠르게 진행되는 도시화와 가치관의 전복을, 90년대에는 양극화되는 세대 갈등과 동일시되었다. 이처럼 구체적인 양상은 달랐으나 이는 공통적으로 그들이 알던 기존 세상과는 판이했으며, ‘낯설’이라는 감정으로 귀결된다. 다만 그 낯설을 불러일으킨 요인이 달랐을 뿐이다. 요지경에 대해 ‘기이하다’는 연행사들의 공통적인 평가는 이 낯설의 연장선에 있으며, 세상이 ‘뱅글뱅글’ 돌고 ‘알쏭달쏭’하다는 노래 가사 역시 변화하는 사회가 낯설고 혼란스러운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한다.

VI. 나오며

언어는 세계관 그 자체다. 상자 안에 렌즈를 넣고 그림을 구경하는 이 영상장치를 언어마다 달리 불렀다는 것은 세계관이 달랐다는 것을 드러낸다. 영어, 독일어나 일본어에서는 본다는 기능이 중요했고 서양경, 양경처럼 서양이라는 개념이 우선시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이탈리아어와 우리의 요지경처럼 새롭고

낮설다는 것에 방점이 찍히기도 했다. 이는 사람들이 장치의 무엇을 가장 높이 평가했는가에 따라 그 이름을 결정했음을 보여 준다. 조선에서만 요지경이라고 명명했던 것은 이 장치를 통해 말 그대로 상상해 왔던 요지의 모습을 본 데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되나, 그 기의는 기표의 표면적 의미에서 벗어나 점점 확장되어 갔다.

요지는 전통 시기 한반도에서 그 기원인 중국과 마찬가지로 주로 장생불사의 공간이자 이상향인 동시에 길상과 세속적 기복을 위한 상징으로 작용했다. 19세기 요지경의 등장과 함께 상상된 요지의 풍경은 한결 더 다층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고, 시대마다 사람마다 요지경에서 다른 것을 보고 느꼈다. 조선 말 연행사들은 청나라의 풍요로움을 보는 한편 유교 문화는 쇠퇴하고 난장이 벌어지는 상업화되고 대중화된 사회상을 목도하였다. 또 개혁파 지식인은 요지경에서 근대화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일제강점기 이후 요지경은 전통, 서양 문화 그리고 일본 문화가 한 데 엉클어진 혼란스러운 곳, 현실임에도 도저히 정상이라고는 볼 수 없는 세상을 뜻하게 되었다. 식민 지배와 함께 밀려든 근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굳게 지켜 오던 가치와 신념은 뒤집혔고,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은 더욱 빠르게 변화해 갔다. 아름답고 신성하여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었던 공간 요지는 그렇게 선과 악이 혼재하는 혼란스러운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30년이 지나 요지경 속 풍경은 빠르게 도시화하는 서울을 의미했고, 다시 30년이 지난 1990년대에는 주로 세대 간의 대립을 상징했다. 이 모든 것들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고, 이곳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세상 저 너머의 풍경, 곧 요지의 풍경이었다. 오늘날 한국인들에게 과거 아름답고 신성했던 요지는 잊힌 채 오래지만, 요지경은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와 같은 상식 밖의 일을 다룬 뉴스 헤드라인에서 자주 접할 수 있다. 최초의 의미와는 상반되지만, 요지는 ‘낮설’이라는 새로운 상징으로 한국인의 삶에 녹아들어 있다.

참고문헌

- 景中 譯. 2007. 『列子』. 北京: 中華書局.
- 郝懿行. 1973. 『山海經箋疏』. 臺北: 藝文印書館.
- 司馬遷 撰, 裴駟 集解, 司馬貞 索隱, 張守節 正義. 1982. 『史記』. 北京: 中華書局.
- 王充 撰. 章衣萍 標點. 1933. 『論衡』. 高雄: 大眾書局.
- 蕭統. 2019. 『文選』. 北京: 中華書局.
- 王逸 撰. 洪興祖 補註. 2013. 『楚辭章句補註』. 長沙: 嶽麓書社.
- 곽박(郭璞) 주. 송정화·김지선 역주. 1997. 『목천자전·신이경』. 살림출판사.
- 권복인·남이익 저. 김영진·임영길 역. 2018. 『(국역)수사한필·초자속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권호문 저. 권영락·안정 역. 2015. 『송암집I』. 안동: 드림.
- 김도태. 1972. 『서재필 박사 자서전』. 을유문화사.
- 김상헌 저. 정선용 역. 2006. 『국역 청음집 3』. 민족문화추진회.
- 김수진. 2017. “조선 후기 병풍 연구.”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종직 저. 임정기 역. 1997. 『(국역)점필재집 III』. 민족문화추진회.
- 김진수 저. 김영죽·박동욱 역. 2018. 『국역 벽로집』.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박사호 저. 김종오 역. 1977. 『(국역)연행록선집 IX』. 민족문화추진회.
- 박성순. 2011. “홍대용과 실지로서의 유리창: 시장의 발견.” 『동아시아문화연구』 50, 155-186.
- 박애경. 2009. “환락과 환멸: 1930년대 만요와 재즈송에 나타난 도시의 낮선 형상.” 『구비문학연구』 29, 139-165.
- 박팽년 외 저. 조동영 역. 1999. 『(국역)육선생유고』. 민족문화추진회.
- 서거정 저. 임정기 역. 2007. 『사가집 9』. 민족문화추진회.
- 성현 저. 조순희 역. 2010. 『허백당집 4』. 한국고전번역원.
- 신인섭·김병희. 2007. 『한국 근대 광고 걸작선 100: 1876~1945』. 커뮤니케이션북스.
- 신현규 편역. 2011. 『아악·당악·속악 고려사 악지』. 학교방.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8. 『세조실록 6』.
- 이관명 저. 황교은·채현경·오항녕 역. 2015. 『병산집 2』. 전주: 흐름출판사.
- 이상면. 2016. “유럽 영상그림상자(peep-box)의 일본 유입 후 풍경판화 메가네에(眼鏡繪)·우키에(浮繪)의 발전과정.” 『유럽사회문화』 제16호, 5-33.

- 이홍식. 2011. “북경 유리창의 공연예술: 18~19세기 연행록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회』 47, 593-622.
- _____. 2015. “연행록 소재 북경 유리창 기록의 변화 추이와 의미 탐색.” 『근역한문학회』 41, 339-375.
- 이혜숙·손우석. 2003. 『한국 대중음악사』. 리즈엔북.
- 임기중 편. 2001. 『연행로전집 88』. 동국대학교출판부.
- 임기중. 2006. 『연행록 연구』. 일지사.
- 장유정. 2012. 『근대대중가요의 매체와 문화』. 소명출판.
- 저자미상. 차주환 외 공역. 1976. 『(국역)연행록전집 VIII』. 민족문화추진회.
- 전은진. 2018. “만요에 나타난 혼종성.” 한국문화융합학회 전국학술대회. 6호, 177-190.
- 조영출 저. 장유정·주경환 편. 2013. 『조영출 전집 1: 조명암의 대중가요』. 소명출판.
- 최립 저. 이상현 역. 2000. 『(국역)간이집 2』. 민족문화추진회.
- 최치원 저. 이상현 역. 2010. 『계원필경집 2』. 한국고전번역원.
- 한필교 저. 김현미·조창록 역. 2017. 『국역 수사록 I』.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허난설헌 저. 허경진 역. 2019. 『허난설헌 시집(許蘭雪軒詩集)』. 평민사.
- 홍대용 역. 1985. 『(국역)담헌서 IV』. 민족문화문고간행회.
- 商偉. 2016. “逼真的幻象: 西洋鏡, 透視法與大觀園的夢幻魅影(中).” 『曹雪芹研究』 2016年第二期, 103-123.
- 蕭兵. 1983. “楚辭神話地名考.” 『華南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一期, 83-86.
- 劉錫誠. 2002. “神話昆侖與西王母原相.” 『西北民族研究』 2002年 第4期.
- Kleutghen, Kristina. 2015. “Peep boxes, Society, and Visuality in Early Modern China.” *Art History* 38 Issue 4, 762-777.
- Lee, Sang-Myon. 2014. “Introduction of the European Peep-box and Development of Visual Culture in the 18th Century Japan.” *Cross-Cultural Studies* 36, 97-122.
- 음원사이트 Bugs. <세상은 요지경> 가사. <https://music.bugs.co.kr/track/2757819>(검색일: 2022. 9. 28.).

Abstract

From Banquet of Yoji to the Song *Life is Yojigyeong*: The Symbol of Yoji in Korean Culture

Jeongha Lee Ewha Womans University

In *The Tale of King Mu*, the mythical space where the Queen Mother of the West, the goddess of longevity and immortality, meets the king Mu of Zhou, symbolizes a utopia, a place of love, and parting and a fairyland, also used in Korea during the traditional period. In the 19th century, Joseon envoys named the peep box Yojigyeong. The reason for this was not only because they saw the image of Yoji that they had imagined through peep box, but also because Yoji represented something unfamiliar and new. From this, the envoys witnessed that commerce and private culture were flourishing in the Qing dynasty, which contradicted the existing worldview. Also, reformist intellectuals saw the possibility of reform to overthrow the existing order. In Manyo, the music genre was born in the 1930s, Yojigyeong meant a hybrid era in which tradition, Western culture, and colonial rule were mixed. In the 60s, Yojigyeong meant Seoul, which was rapidly urbanizing. In the 90s, Yojigyeong meant generational conflict. Yojigyeong compares the new social aspect to the landscape of Yoji, which shows that Yoji, the space of the auspicious goddess, has been given a new symbol of 'strangeness' in the Korean context.

Keywords | Queen Mother of the West, Yoji, Yeonhaengsa, Yojigyeng, Manyo

